

위험한 해체공사, 제도 강화로 안전 LEVEL UP!

안전 게이지 충전 완료!



주제 안전한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 관리자, 국민

구조물이 불안정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

보다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2년
8.4.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체공사의 해체계획서(설계도서)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1 허가 대상은 **관계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은 **관계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현장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허가대상의 경우, 해체공사 전 **허가기관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 공사 중 감리자가 업무에 소홀한 경우에도 현장 방문해 확인

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감리자는 **전문교육(35시간)** 및
보수교육(14시간, 매 3년)을 받아야 합니다.

- + 감리자는 수행 중인 감리업무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함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WARNING



해체작업자와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자, 시공사 처벌

해체 공사 내용 변경 시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허가(신고) 받은 해체 공법·순서·범위·장비 등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 해체공사기간이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공임없이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불안한 해체공사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